

요한복음 24번째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5:1-24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죄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신 예수님

둘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셋째, 안식일과 예수님

I. 죄를 정복하는 치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 보았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38년된 병자를 고친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 치유받은 병자를 다시 찾아 오신다. 다시 찾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그 뜻은 그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목적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거룩한 삶이 살지 않으면 38년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보다 훨씬 심한 고통이 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심한 고통이라는 장차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28-29). 죽은 후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된 것이다.

II.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16-18을 읽어보자.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대로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로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대로 일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똑 같은 일을 하신다.

19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하나님과 똑 같은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22절말씀은 19절 말씀과 배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아들이 독자적으로 심판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3:36에서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만 심판 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만 심판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22절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이다. 23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힌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같다는 의미다. 다른 말로하면 현장에서 역사적인 예수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과 동일하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24)”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다.

Ⅲ. 안식일과 예수님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가올 세상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세상, 낙원을 창조 하셨다. 그리고 쉬셨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즐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 왔다. 그리고 죄를 통해서 질병과 재앙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망가지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까지도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게 된 것이다(로마서 7:20-23참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안식의 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 일은 죄와 질병과 죽음을 정복 하는 일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정복하고, 불의의 비참함을 멈추고,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회복과 변화의 사역을 수행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칠 때, 일부러 안식일에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무엇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이 땅에서 결정적인 회복의 일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것이다.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낙원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배우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의 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구속 사역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낙원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땅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온 우주적인 구원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